

전문지 NEWS 클리핑



◎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 위촉식 개최

추진위,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 39명 위촉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이하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aT센터 에메랄드 홀에서 박람회 추진위원 위촉식 및 추진 경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동일 박람회 대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지난 박람회보다 2만여 명이 늘어난 15만명 관람객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축산기술 및 축산시설기계 관련 정보 교환의 최대의 장이 될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의 성공적 유지를 위해 위촉되신 추진위원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진 추진 경과보고에서 박람회 진행을 맡은 (주)엑스코그룹코리아 함경숙 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전시기간이 연장되고 실내 부스가 증대됨은 물론 주차, 냉방, 전기 문제 등 지금까지 박람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시켰다”며 “참가업체 모집도 지난달 100% 완료되는 등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조남조 한국 사료협회장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자문위원: △이계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류근찬 국회의원(선진과 창조외의 모임)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 △유성엽 국회의원(무소속) △홍문표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 △이택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송용호 충남대학교 총장 △최준구 전 대한양계협회장 △이인현 전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추진위원: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이재용 축산물 등급판정소장 △라승용 축산과학원장 △배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상현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장 △오세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김명호 한국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 협회장 △안승춘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장 △강준수 한국양육협회장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이규태 한국유가공 협회장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이길용 한빛복지협회장 △박장희 한국가금학회장 △김언현 한국축산식품학회장 △김기운 축산경제신문 회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대표 △이주상 농업정보신문 대표 △강정호 농축환경신문 대표 △김오환 양돈타임즈 대표 △류종열 전업농신문 대표 △한도숙 한국농정신문 대표 △이희석 한국영농신문 대표.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7월 24일

◎ HACCP 지정 테마농장 체험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초등학교 대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7월 16일 학교급식 주체인 초등학교 학생과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HACCP 지정 우수 농장 체험을 실시했다. 경기도 송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40여명을 대상으로 HACCP 지정 농가인 진주목장(대표 박응규)에서 실시한 이번 체험은 젓소 농장 낙농체험(송아지 우유주기, 젓짜기)과 치즈와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이어 젓소 사양과 HACCP에 관한 이론 수업이 병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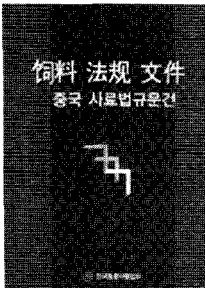
곽형근 원장은 "HACCP 테마 농장 체험 사업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일반 소비자(학생 등)에게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시스템인 HACCP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물 보호에도 의의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기준원은 하반기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HACCP 테마 농장 체험을 몇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7월 24일

◎ ‘중국 사료법규문건’ 업계서 인기

동약협회 수요 증가로 30부 추가 발간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진구)에서 발간한 ‘중국 사료법규문건’ 책자가 최근 동물약품업계 및 사료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사료법규문건’

책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가 국내 회원사들의 중국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초 중국수약대회 및 VIV차이나에 참석해 중국 현지 대학교수 및 중국동물약품협회 등을 통해 중국의 사료법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한글로 번역한 책자다.

지난달 초 협회 회원사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최초 30부를 발간, 배포한 후 이 책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동물약품 업체는 물론 사료업체들의 수요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

약품협회는 추가로 30부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자를 공급 받기를 원하는 관련 업체들은 중국의 사료법규를 한글로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시장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호평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종호 차장은 “중국 사료법규문건” 책자는 사료첨가제 수출을 대비해 제작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수요 쇄도는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8~9월경에는 ‘중국 수의법규문건’을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번역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7월 24일

◎ 산업동물수의사 수급부족 · 고령화도 심각

전체 임상수의사의 18% 수준 · 40세미만은 3.5%

산업동물수의사의 부족 및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서 개최된 농축산 전문지 기자 및 축산관련단체 홍보팀장 간담회에서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학과 학생 및 젊은 수의사들의 산업동물병원 개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동물수의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향후 10년 이내 산업동물 진료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자료

(2008년 9월)에 따르면 총 3315개소의 동물병원 중 반려동물병원이 2174개소(66%), 산업동물병원이 679개소(20%), 이를 병행하는 동물병원이 462개소(14%)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수 역시 전체 4109명의 임상수의사 중 반려동물 종사자가 2821명(69%), 산업동물 종사자가 751명(18%), 병행 종사자가 537명(13%)로 집계돼 반려동물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산업동물수의사 751명 중 30세 미만이 5명(0.6%), 30대가 142명(19%), 40대가 236명(31.4%), 50대가 112명(15%)으로 집계됐고,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256명(34%)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산업동물수의사 중 젊다고 할 수 있는 40세 미만의 산업동물수의사는 147명으로 전체 임상수의사의 3.5% 수준. 이 같이 산업동물병원과 산업동물수의사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수의학과 학생 및 젊은 수의사들이 무분별한 동물약품 유통, 자가 진료 등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동물병원 개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산업동물수의사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동물전문교육시설 설치와 농장전담수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수의사처방제 시행 및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동물병원 개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산업동물임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 신설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7월 24일

◎ 자돈접종 주류 써코백신시장 ‘모돈접종’ 반격 개시

“모체이행 항체 조기 소멸” 자돈접종 진영 주장에
“평생 능동면역 형성...항체 유지 개념 극복” 반박

“모돈접종만으로도 충분히 써코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한다.” 모돈접종 써코바이러스 백신이 자돈접종 백신 진영에 반격을 시작했다. 국내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모돈접종과 자돈접종으로 양분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돈접종이 주도하는 분위기. 현재 5개 제품이 국내에서 써코바이러스 백신 허가를 받았다.

이중 한개 제품만이 모돈접종용, 다른 하나는 모돈·자돈접종 겸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돈접종용이다. 자돈접종 진영은 “모돈접종을 통해 자돈으로 이행된 항체는 조기에 소멸된다. 항체가 사라진 이후에 들어오는 질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격해 왔다. 이에 대해 모돈접종 진영은 “항체를 물려줘 어린자돈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다른 모돈접종 백신과 같다. 그렇지만, 써코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항체가 유지될 때까지라는 개념을 극복했다.

즉 어린 일령에 충분한 모체이행 항체를 획득한 자돈은 육성기, 비육기에도 능동면역을 발휘해 써코바이러스 질병을 이겨내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돈접종은 출생직후부터 백신전까

지는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이 시기 자돈은 면역시스템 없이 써코바이러스 질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일단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백신을 아무리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모돈접종은 자돈이 태어날 때부터 항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린일령 뿐 아니라 평생동안 써코질병을 막아낼 능동면역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모돈접종 진영은 이밖에도 모돈접종만으로 자돈들의 써코질병 예방이 가능한 만큼 가격과 사용편리성면에서 자돈접종을 압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0일

◎ 축산현장 곳곳서 질병관리·컨설팅 맹활약

다양한 ‘공공업무 수의사’ 명칭들

농식품부, ‘공익수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명칭 변경안 입법 예고

수의사들은 축산현장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질병진료 뿐 아니라 각종 컨설팅 과정에서 수의사를 쉽게 만난다. 공공업무 수의사 역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역이라든가, 축산물 위생, 검역, 동물보호 등 여러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공공업무 수의사들은 다양한 역할만큼 불리는 명칭도 꽤 많다. 최근에는 법령개정을 통

해 명칭변경이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그 누구보다도 축산인과 가깝고 친근한 공공업무 수의사를 소개한다.

〈자료협조:대한수의사회〉

■ 공익수의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공중보건과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제도다.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획득한 자 중에서 선발해 훈련기간을 거친다. 주로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맡고 있다. 3년간 종사한다.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해 공익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달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을 변경기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 자체검사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계장, 집유장 등에서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축장은 공무원인 수의사 중에 검사관이 위촉 파견돼 위생 검사 업무를 한다. 그렇지만 도계장과 집유장은 자체적으로 민간인 중에 수의사를 고용해 위생 검사업무를 실시토록 한다.

검사관은 공무원 수의사이고 자체검사원은 회사 소속 민간 수의사라고 보면 된다. 자체검

사원 역시 농식품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책임수의사'로 명칭병경할 것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자체검사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계장, 집유장 등에서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축장은 공무원인 수의사 중에 검사관이 위촉 파견돼 위생검사 업무를 한다. 그렇지만 도계장과 집유장은 자체적으로 민간인 중에 수의사를 고용해 위생검사업무를 실시토록 한다. 검사관은 공무원 수의사이고 자체검사원은 회사 소속 민간 수의사라고 보면 된다. 자체검사원 역시 농식품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책임수의사'로 명칭병경할 것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관리수의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

지정검역물 검역은 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창고 등을 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검역창고) 해당 검역시행장에서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수의사라 한다. 공무원은 아니다. 검역시행장 관리수의사는 자체검사원처럼 업주가 고용한 민간인 수의사였다. 그렇지만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일원화돼 방역본부에서 급여를 받고 각 검역창고에 파견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 공수의

'수의사법'이 근거법령이며 가축방역, 현장예찰 등을 맡고 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시군구청장이 '공수의'로 위촉해 현장예찰 및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동물병원 수의사 외에도 예외적으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 기타 공무원 수의사 명칭

검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 (예 : 검역원 인천지원 등)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 축산농가관리, 공수의 관리, 현장예찰 및 차단방역 등 (예 : 시도 및 시군구청 등의 수의직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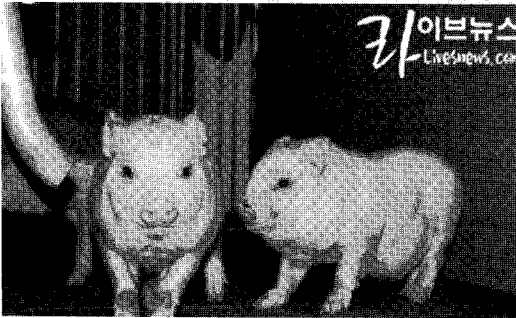
검사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생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 시도축산위생연구소 근무 수의사 중 도축장에 파견돼 위생검사실시)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학대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은 기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수의직 파트에서 하고 있는 바 다수의 수의직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2일

◎ 돼지 장기 이식 가능성 한층 높아져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간면역력을 가진 형질전환돼지 세계 최초로 생산



세계 최초로 생산된 '인간면역력을 가진 형질전환돼지'

사람에게 장기(臟器) 이식 시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간면역력을 가진 복제돼지가 세계 최초로 생산되어 돼지 장기의 인간 이식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이종장기(異種臟器) 이식에 사용 가능한 인간 면역유전자(Fas ligand, FasL:인간의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간 형질전환돼지를 세계 최초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난 5월 11일 생산된 이종간 장기이식용 형질전환돼지는 현재 90일째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단(청장 김재수)의 지원을 받아 충남대학교(진동일), (주)엠젠(설재구)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세계 최초로 생산된 이 형질전환 복제돼지는 (주)엠젠

에서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람의 면역 유전자의 일종인 FasL 유전자를 형질전환기법으로 돼지의 체세포에 주입하여 형질전환 복제 돼지를 생산해 내었으며, 이는 향후 췌도(胰導) 세포, 각막(角膜)등의 이종간 세포 및 조직이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성 면역 거부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형질전환돼지'의 염색체 내에 사람의 면역유전자인 FasL 유전자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유전자증폭(PCR)법과 염색체형광 위치확인법(FISH)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동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분석하고 생물학적 활성도를 검증한 후 이종장기의 이식원(移植源)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종장기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여러 단계의 면역거부반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적합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요구되는 바, 이번에 생산된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경우 이종장기 이식에 따른 세포독성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역관련 유전자를 적어도 3~5개 정도는 조절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연구성과는 이와 같이 면역관련 유전자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종장기 이식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팀은 지난 번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되어 초급성

면역유전자가 제어된 형질전환돼지(Xeno)와 본 연구결과로 탄생된 인간면역유전자(FasL) 도입 형질전환 돼지를 상호간 잘 조합하여 이중 간 장기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 반응을 최소화 시켜 새로운 장기이식용 돼지를 조기에 생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양창범 연구정책국장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장기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이중장기 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위상 제고와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및 사람 생명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홍귀남 기자(xd4078@hanmail.net)
라이브뉴스/2009년 8월 12일

◎ 소 바이러스설사병 '요주의'

소독된 곳에 송아지 격리사육, 모우 유방 청결 관리, 충분한 초유 영양 공급을

소 바이러스설사병(BVD)에 의한 유산 및 지속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지침을 준수하는 등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5년간 의뢰된 소의 가검물을 분석한 결과 소 바이러스설사병에 의한 유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감염우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BVD에 의한 유산은 지난해 23건으로

2007년 3건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소의 뇌조직에서 BVD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약 16.2%가 감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3.5%가 지속감염우로 판단됐다. 이는 2006년 조사 당시 지속감염우가 1% 미만인 것에 비하면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감염실태와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BVD 지속감염우 조기검색'을 연구개발 과제로 제안한 상태다. 검역원은 또 BVD 예방을 위해 농가들이 △송아지는 깨끗하고 소독된 곳에 격리해 사육할 것 △모우유방의 청결유지 △충분한 초유와 영양공급 △지속감염우의 도태 등의 예방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민 기자(kimym@agrinet.co.kr)
농어민신문/2009년 8월 13일

◎ 한육우 브루셀라병 매년 감소 추세

06년 2만3140두에서 08년 7718두로 줄어

국내 한육우에서의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육우에서의 브루셀라병은 지난 2001년 4농가 70두에서 발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2만3140두(4321농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국가의 다각적인 방역정책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성과로 2007년에는 1만546두(2249농가)로

감소했고 2008년도에는 7718두(1748농가)로 줄어들었다. 검사양성을 또한 매년 줄어들어 2008년 말 1% 미만인 0.33%를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집계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검사양성율은 평균 0.29%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149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단기간내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는 전두수 개체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수집상·증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농가의 자연교배용 수소는 연 4회이상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 지역(감염율 2.0%초과)은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정기검사 외에 연1회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송아지 포함) 및 젖소 암소를 추가하여 거래되는 모든 소는 증명서를 휴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최근 3년간 브루셀라병 비발생 등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 세균과장은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기관의 정기 검사에 의한 감염소의 조기색출, 소의 외부 구입 시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 감염 증상 소 즉시 신고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8월 14일

◎ 동물용의약품 수입증가 지속

무역적자 886억 돌파 10년새 308억 늘어

국내 동물용의약품분야의 무역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동물용의약품 완제품 수출액은 168억6700만원이었지만 수입액은 746억42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577억7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수출이 409억9400만원, 수입은 1296억3700만원으로 적자 폭이 886억4300만원으로 커졌다. 무역적자 폭이 10년 새 308억6800만원이나 불어난 것. 특히 백신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9년 256억5400만원이었던 수입액이 2008년에는 594억2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 업체수도 163개로 제조업체 133개보다 30여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약품협회 신형철 전무는 “국가의 방역 정책이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백신의 수요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기술 점유율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이 발 빠르게 국내 백신 시장을 공략하면서 백신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동물용의약품 완제품의 경우 유럽과 북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FTA협상에 따른 무관세화는 수입선 다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무는 이와 함께 수출 가능 품목의 경우 국내허가와

수출국 등록을 동시에 고려한 자료를 준비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CMO를 설립해 동물약품 수출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출을 활성화해 무역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09년 8월 14일

◎ 기자수첩/ 산업동물 수의사 '해외 용병 시대' 오나

“가축을 진료할 수의사가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축을 보고 있노라면 농장주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모레쯤이나 들릴 수 있어요”라는 수의사 말은 여간 원망스러운 게 아니다. 산업동물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산업동물 수의사는 751명. 전체 동물진료 수의사가 4천109명이라고 하니, 18%에 불과하다. 노령화도 짙고 가야할 문제다. 산업동물 수의사 751명 중 256명이 60세 이상이다. 34%에 해당한다. 20~30대는 147명으로 20%를 넘지 못한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의학과 학생이나 젊은 수의사들은 산업동물 종사를 기피한다. 한 자료를 보니, 수의과 졸업생 중 6.2%만이 산업동물 분야를 희망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반려동물, 공무원, 기업, 단체 등에 문을 두드린다. 이러다가 보면, 10년 후 쯤에는 산업동물 수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산업동물을 기피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역시 돈벌이다. 수의사들은 하루 8건 진료는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말한다. 현재 4건 정도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무분별한 동물약품 유통과 자가진료 성행이 산업동물로의 신규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동물 수의사는 질병진료는 물론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악성가축 전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을 막는 최전선에 배치돼 있기도 하다. 특히 2011년 시행예정인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의사 부족 문제를 단순히 수의사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정부, 학계, 협단체 등 모두가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산업동물 전문교육시설 설치라든가, 농장전담 수의사제도, 산업동물 장학생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7일

◎ 닭고기·돼지고기 수입 '경총'

환율 안정세...5월부터 ↑, 한우고기 판매 호조로.. 쇠고기는 수입량 변화 미미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

검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축산물 수입물량은 지난 7월까지 쇠고기 11만1964톤, 돼지고기 14만112톤, 닭고기 2만7942톤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안정된 5월부터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4월까지 7만7355톤이지만 환율이 안정된 5~7월 사이에는 6만2756톤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닭고기의 수입량은 더 크게 늘었다. 닭고기는 올해 4월까지 1만25톤이 수입됐으나 같은 기간 1만7916톤이 수입돼 다른 품목에 비해 수입량이 더 크게 늘었다. 다만 쇠고기는 한우고기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환율에 따른 수입량 변화가 미미했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닭고기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프렌차이즈나 외식에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입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환율까지 안정돼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했다.

김영민 기자(kimym@agrinet.co.kr)
농어민신문/2009년 8월 17일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 농가·관련업계 협조 필수”

김회순 등급판정소 본부장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가 수입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는 물론 관련

업체에서 한우산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에 따른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회순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장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을 위해 한우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월 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개체식별번호 표시도 잘 이행하고 거래내역서도 잘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영세규모의 식육판매업소나 도축장, 가공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부족한 상태라 이에 집중력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소 등 급제도도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 것처럼 이력추적제도 상당기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단속기관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작업장을 상대로 모니터링과 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작업장의 숙련도 미숙으로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제도 시행 초창기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면 초기의 부담들은 분명히 상쇄될 것”이라며 초기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감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농가들도 소 출생이나 거래시 신고를 정확히 해 개체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kimym@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2009년 8월 17일

◎ “동약 EU 수출, 못넘을 벽 아니다”

인터베트 반 비크 인허가업무 담당자 설명회서 주장

“4가지 인허가 절차 효율적인 활용이 성공열쇠” 강조 EU 역시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출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EU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 설명회’에서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크리스티앙 반 비크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동물약품의 EU 수출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수출에 성공한다면 회사 및 제품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동물약품 EU 수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EU의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Central(중앙절차), DCP(비중앙절차), National(국가별 절차), MRP(상호인증 절차) 등 4가지 등록절차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수출성공의 열쇠이다”고 강조했다. 반 비크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절차는 EU 전체 국가의 허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허가기간도 18~24개월로 꽤 길다는 단점이 있다. 비중앙절차는 1개국씩 다수의 나라에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지만 평가를 하는 나라는 소수이어서 평가에 따라 관계국가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허가기간은 4개월 정도로 짧

다. 국가별 절차는 각각의 나라에 등록신청을 하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상호인증 절차는 1개 국가의 허가권에 대해 타국이 심사결과 및 권리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계가 있는 회원국가간에만 통용된다. 최초 1개 국가에서 허가를 획득하는데 210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에서는 최초 국가의 평가보고를 참고해 인허가를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의 수출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너무 편중돼 있다. EU 수출이 국내 동물약품의 위상을 높여 시장영역을 다각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9일

◎ 인허가 높은 문턱 허문 '사이버 소통'

한때 ‘소통(疏通)’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소통에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방통행에서 탈피해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카페(cafe.daum.net/nvrqspharm)는 동물약품 업체와 담당 기관간에 허물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이 크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인허가 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업체들의 불멘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옛

말이 돼 버렸다. 카페에서만큼은 상하 지위가 없고, 누구나 평등하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뱉는다. 검역원 공식 홈페이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동물약품 업체들이 시시콜콜한 것을 묻고, 수다를 떨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인터넷카페는 철저하게 고객눈높이에 맞췄고, 이런저런 거품을 째냈다. 지난해 1월 오픈한 카페의 회원은 벌써 150명을 넘어섰다.

회원들은 업계를 비롯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통업자 등 꽤 다양하다. 하루 방문객은 30명이 넘는다.

회원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카페를 들러 안부를 묻고, 어제 한 일과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한다. 가끔씩이지만, 번개탕을 통해 만남을 갖기도 한다. 자유토론폰방에는 재평가, 유효성분, 허가과정 등 현안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카페는 민원처리 공간이다. 업체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가 빨리 대답한다. 또한 요긴한 자료를 비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동물약품관리과는 설문조사를 하며 도와줄 일을 고민한다. 카페에는 제도 변경, 행사안내 등 각종 공지사항이 안내돼 있다. 카페라는 매개체를 통해 업계와 담당기관은 불편함이 사라졌고, 친근해 졌다. 업체를 '고객'이라고 부르고, 고객과 함께 걸어가는 동물약품관리과 모습이 아름답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9일

◎ 배합사료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준 개정 안 입안예고

앞으로 배합사료에 썰파치아졸을 첨가할 때는 톤당 100g의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8월 6일 축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 가능한 썰파치아졸의 사용기준을 추가하기로 하고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검역원 고시 제2008-25호)'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썰파치아졸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추가됐고, 어린돼지용(젓먹이·갓난돼지, 젓편 돼지)의 경우 100g/ton(ppm) 기준을 마련했다.

규정은 다음달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검역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8월 19일

